

지점소식 📌

🌸 서울지점

- 서울지점은 5 월부터 6 월까지 다수의 미주행 Spot Charter 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프로젝트 화물 및 긴급 화물 수요에 적극 대응
- 특히 LAX 및 ORD 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스페이스 확보와 운영 역량을 기반으로 고객 대응을 강화하였으며, 미주 노선 경쟁력 확대에 집중
- 또한 7 월에는 Regular Charter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공급 확보와 서비스 안정성을 강화하여 고객 지원 역량을 한층 확대할 예정
- 2026 년 7 월 17 일 : 제헌절

🌸 홍콩지점

- 2026 년 7 월 1 일 :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Establishment Day

🌸 도쿄지점

- 2026 년 7 월 20 일 : 바다의 날

☀️ 페낭지점

- 2026년 7월 7일 : 조지타운 세계문화유산도시의 날
- 2026년 7월 11일 : 페낭 주지사 탄생일

☀️ 방콕지점

- 2026년 7월 28일 : 국왕 탄신일, 7/29~7/30 불교 공휴일

☀️ 다렌지점

- 다렌지점 신규오픈 및 26년 2월부 정식 업무 개시 (대표번호 : 86-411-3924-8813)

☀️ 파리지점

- 2026년 7월 14일 : 프랑스혁명 기념일

지역동향



☀️ 서울지점

- 6월 11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봉쇄를 선언하며 긴장이 일시 최고조에 달했으나, 이후 미군의 통제 하에 해협 통항이 재개되고 이란군의 동향도 안정적으로 관리되면서 휴전 분위기가 빠르게 확산
- 6월 중순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과 이란 간 합의(MOU) 논의가 급물살을 타며 국제유가는 배럴당 90 달러 아래로 내려앉았고, 코스피를 비롯한 한·미 주요 증시는 긴장 완화 기대감에 강하게 반등
- 다만 KIEP 분석에 따르면 지난 3~4월 중동 충격으로 원유(중질유) 수입단가가 41.7%, 나프타 35.7%, 프로판 35.1% 급등한 데 이어 반도체 제조장비·전기전자부품 등 전략 중간재를 중심으로 국내 제조업의 조달 부담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며, 휴전 여부와 무관하게 공급선 다변화 및 공급망 모니터링 체계 강화가 향후 과제로 지적
- 한·미 대미투자특별법 시행(6월 18일)과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투자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미국 5월 ISM 제조업 지수가 54.0으로 4년래 최고치를 기록하며 AI·반도체로 Capex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어 미주행 항공화물 시장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

☀️ 부산지점

- 2026 부산모빌리티쇼 (6월 26일 ~ 7월 5일), '내일의 길을 열다'라는 주제로 벅스코에서 개최되며,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완성차부터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까지 미래 모빌리티 트렌드를 총망라하고 세계 최초 신차 공개 및 다채로운 부대행사(시승 체험 등)가 마련되어 지역 경제와 마이스(MICE) 산업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음
- 제 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7월 13일 ~ 7월 29일), 한국의 세계유산협약 가입 38년 만에 국내 최초로 부산(벅스코 일원)에서 개최되는 세계유산 관련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서 전 세계 3,000여 명의 주요 인사가 모여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하며,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가치와 대한민국의 우수한 문화적 역량을 글로벌 무대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

❁ 홍콩지점

- 홍콩 구매관리자지수(PMI), 5월 50.4로 상승, S&P 글로벌 홍콩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월 48.6에서 5월 50.4로 상승하며 3월 이후 처음으로 확장세로 전환, S&P 글로벌은 이러한 완만한 성장은 홍콩의 사업 환경이 회복되었음을 반영하지만, 연초의 상승폭에는 여전히 크게 못 미친다고 분석
- 홍콩 토큰화 채권 도입 확대, 홍콩의 중앙은행인 HKMA는 토큰화 채권 시장 개발에 대한 관련 경험과 관심을 가진 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토큰화 채권 전문가 그룹을 소집하여 토큰화 채권의 도입과 확장을 촉진하기로 했으며 소집되는 전문가 그룹에는 관련 업계 협회, 금융 기관, 법률 자문 회사, 금융 인프라 및 기술 제공업체 대표들이 참여, HKMA는 또한 전문가 그룹이 HKMA의 다양한 토큰화 채권 관련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 방안, 시장 관행 및 혁신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발표

❁ 도쿄지점

-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대만 문제와 안보 문서 개정, 방위력 강화 기조를 전면으로 두고 있으며, 일본 외교청서 초안에서도 중국과의 관계 표현을 낮추고 대만 관련 문구를 조정하는 등, 대중(對中) 견제를 분명히 함, 이러한 흐름 때문에 중일관계는 2026년 6월에도 냉각 상태가 이어지고 있음
- 일본은행은 6월에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1.0%로 올렸고, 이는 31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평가. 금리인상 배경에는 전쟁·에너지 충격, 수입물가, 기대인플레이션 압력이 겹쳐 있다는 점이 있고, 또한 2026년 상반기 식품 가격 인상 품목이 많고, 식료품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가계 체감경기는 개선이 쉽지 않을 전망

❁ 타이페이지점

- 대만-중국간 긴장 지속 및 군사 대비 강화, 도발에 대한 군사대응 시간 단축 훈련 확대

- 대만 경제는 AI 서버, 고성능 반도체, 첨단 패키징 (CoWoS),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에 의해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주요 연구기관들은 2026년 성장률을 약 3.7~4.1% 수준으로 전망

🌸 방콕지점

- 현재 10% 적용중인 대미 관세가 7 월말부로 만료되고 인상 가능성이 있어 인상에 대비한 7 월 선적량 증가 추세
- 한-태 FTA : 올해 타결 목표로 협상 중이나 발효 전까지는 한-아세안 FTA-RCEP 원산지증명으로 관세를 절감하고 있음
- 디젤가격 : 4 월 고점 대비 약 20% 하락 안정세이나 등락 반복
- 우기 진입 : 6 월 중순 시작, 9~10 월 절정. 방콕 폭우 시 도로 침수 등으로 내륙 운송 지연되는 사례 빈번 (우기철 트럭 운송·납기 일정은 여유 있게 준비할 필요가 있음)

🌸 페낭지점

- 말레이시아, 전력 수요 급증에 석탄 사용 줄이고 가스 발전 확대 : 폭염 및 데이터센터 확대로 말레이반도 전력 수요가 4월기준 전년대비 11.5% 증가함에 따라 가스 발전량 50.5% 급증, 말레이반도 전력시장 내 발전용 가스비중이 42.6%로 2019년 10월이후 최고치를 기록, 말레이시아는 해상 가스전 LNG공급량을 지난해 연간 대비 3배 확대

🌸 싱가포르지점

- 싱가포르 중앙은행은 정부는 중동 분쟁 장기화로 인한인플레이션 압력과 'AI버블 붕괴 우려' 등을 고려하여 7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

🌸 호치민지점

- 2050년 탄소중립 베트남, 전기차 전환 가속화 : 전국 EV 등록 대수 37.5만대 육박
- 호치민시 국제학교, 등록금3-6% 줄인상 : BIS 연 3.8만달러 육박 (연간학비 일시납 기준)
- 베트남서 중국 온라인스캠 조직 잇따라 적발 : 캄보디아 '풍선효과' 현실화

🌸 충칭지점

- 6 월 21 일부터 9 일간 진행된 2026 충칭 국제 자동차 전시회 폐막, 총 전시 규모는 16 만 평방미터로 118 개 자동차 기업 브랜드가 참가하여 총 1,050 종의 신차를 전시
- 충칭의 대외무역은 고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2026 년 상반기 전시 수출입 총액은 4236.5 억 위안을 돌파해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했으며, 이는 전국 전체 증가율보다 3.1%포인트 높아 6 개월 연속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성장세를 보임

❁ 광저우지점

- 광저우시는 「국민경제·사회발전 제 15 차 5 개년 계획 요강」을 발표하면서, 2030 년까지 GDP 4 조 5 천억 위안, 1 인당 GDP 3 만 달러 이상을 달성하고 2035 년까지 GDP 6 조 위안 규모의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
- 또한, 광저우시는 난사항(南沙港), 광주아오(广珠澳), 광칭융(广清永) 고속철, 남방허브(南方枢纽) 등 주요 교통 인프라를 중심으로 9 대 분야 약 600 개 중대 프로젝트에 총 3 조 위안 이상을 투자할 예정

❁ 선전지점

- 선전 국제 종합 물류 허브센터 연내 정식 오픈 예정, 총 부지 면적 약 90 만㎡로, '하층 철도 작업, 상층 스마트 창고'의 입체 개발 방식을 도입, 상부에는 연면적 85 만㎡의 4 층 물류 복합시설이 들어서며, 55 만㎡의 고급 창고와 4.5 만㎡의 냉동·냉장 창고를 갖추고 있어 전면 가동 시 지역 물류 효율 30% 향상 및 종합 비용 20% 절감 효과가 기대

❁ 텐진지점

- 텐진시 26년 1~4월 수출입액은 2,610억 위안 (+3.7%)으로, 그중 수출액은 1,462억 위안 (+13%)을 기록하며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1.7%p 높은 수준이며 ASEAN,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대상 수출입은 각각 11%, 9%, 38% 증가, 신흥시장으로 수출입 다변화 추세

❁ 파리지점

- 프랑스 전국에서 기록적인 폭염으로 운송, 건설, 농업 등 야외 산업의 생산성 저하 및 물류와 공급망에도 일부 지연 발생
- 정부는 폭염에 따른 근로자 보호 강화 및 기업들에게는 근무시간 조정, 휴식시간 확대, 식수 제공 등 안전조치를 의무화하여 일부 창고에서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시간 및 처리속도 조정

물류동향 📌

❁ 서울지점

- 한국발 미국 및 유럽향 시장은 한국발 Local 대형 화주 물량(미서부향 화장품, 미중부향 자동차부품·산업설비)이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중국발 Sea & Air 전자상거래 수요까지 더해지며 전반적으로 공급이 타이트한 상황이 지속

- 유럽항 시장은 7 월 1 일부 시행되는 EU 전자상거래 면세(De Minimis) 폐지를 앞두고 중국발 밀어내기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한국발 Local 수요 또한 화장품 및 K-POP 굿즈 등 LOT 성 화물을 중심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
- 중국발 미주항 시장은 전자상거래 및 AI 데이터센터向 네트워크 장비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노선별 운임 등락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발 유럽항 시장 역시 De Minimis 폐지 전 밀어내기 물량과 네트워크 설비, 자동차 부품 수요가 겹치며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항을 중심으로 운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음
- 해상 운송 시장은 조기 성수기 진입에 따른 화주들의 선제적 재고 확보 수요와 선사들의 공급 조절이 겹치며 강세 지속, 6 월 3 주차 SCFI 종합지수는 전주 대비 9% 상승한 2,985pt 를 기록하였으며, 미주 서안·동안 및 북유럽·지중해 노선 운임이 7 주 연속 상승하는 등 전 항로에서 고운임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항공화물 시장은 IATA 가 중동 분쟁 여파를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0.2%로 크게 하향 조정하였음에도, 반도체·AI 서버 등 고부가가치 Capex 물량과 의약품, 콜드체인 수요가 시장을 견조하게 지지하고 있으며, 해상 운임 강세에 따른 Sea-Air 전환 수요 또한 지속되고 있음

🌸 부산지점

- 미주항로 (강세지속) : 미국의 대중국 관세 정책 변경(인상) 가능성에 대비해 화주들이 물량을 대거 앞당겨 밀어내는 '조기 선적(Front-loading)' 수요와 중국발 물량이 늘어나며 운임이 급등
- 유럽항로 : 홍해 우회 장기화로 인한 선박 운항 일수가 늘어난 데다, 운임 인상 영향으로 공급 긴장이 이어지며 운임 상승 흐름이 지속
- 근해/기타항로 : 인도·동남아 중심 물동량 증가와 선박 부족 영향으로 스팟 운임 강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노선에서는 엑스트라 선박 투입도 확대

🌸 홍콩지점

- 홍콩 운송물류국(Transport and Logistics Bureau)에 따르면 해운, 무역, 화물 포워딩, 창고 부문을 아우르는 6,000 개 이상의 기업이 새롭게 출시된 '항만 커뮤니티 시스템(Port Community System)'을 사용하기 위해 등록, PCS 는 2023 년 초 시범 운영을 시작하여 올해 1 월 공식 출시, 이 시스템을 통해 기업들은 단일 플랫폼에서 화물 추적 및 국경 통관을 수행
- 홍콩공항 제 2 터미널 개장 및 15 개 항공사 제 2 터미널 이전 완료

- 홍콩공항 제 2 터미널로 이전한 15 개 항공사는 홍콩 익스프레스, 홍콩 항공, 그레이터 베이 항공, 제주항공, 에어아시아, 타이 에어아시아, 필리핀 에어아시아, 바틱 에어 말레이시아, 하이난 항공, 타이 라이온 에어, 캄보디아 항공, 인디고 항공, 비엣젯 항공, 방콕 항공, 세부 퍼시픽

- 홍콩공항관리공사(AAHK) 대표단이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 항공 파트너들과 홍콩과 두 국가 간 항공 연결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각각 체결했으며 2027년에는 홍콩과 알마티 간 직항편 운항 예정

❁ 도쿄지점

- 일본 항공화물 시장은 반도체·전자부품·AI 관련 고부가가치 화물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운임 변동성이 확대되는 양상
- 전 세계 항공화물 수요는 2026년 초 강세를 보였으나, 2분기 들어 성장세가 다소 둔화, IATA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글로벌 항공화물 수요 증가율 전망을 0.7%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공급 부족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
- 일본의 해상 물류는 운임은 일부 노선에서 하락, 반면 LNG 선박·에너지 물류는 전략 산업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으며 일본은 LNG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아 LNG 운반선 확보를 핵심 물류·에너지 과제로 보고 있음

❁ 타이페이점

- 2026년 7월 항공 물류 시장은 전통적인 "7월 비수기" 패턴보다 AI·반도체 화물 수요 + 공급 부족 + 연료 리스크가 더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 특히 대만(TPE) → 한국(ICN), 미국, 동남아 노선은 일반 화물보다 반도체·장비·서버 관련 화물이 늘어날 전망
- 일부 항만과 노선에서 "부분 혼잡+선박 부족+월말 롤오버(Roll-over)"가 발생한 상황으로 현재 대만 - 한국 구간은 3일~7일 정도 지연 지속 발생

❁ 방콕지점

- 램차방향 혼잡 재증가됨에 따라 차량 대기 시간 평균 4~5시간 상승 (특정 터미널의 경우 차량 대기시간 7~24시간 발생), 해상 운임은 7월부 EFS (긴급유류할증) 폐지되나 LSS, GRI 인상으로 6월보다 높은 상태
- 항공 화물 : 중동 경유 항공편 점차 회복 중이나 운임은 전년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
- 중국 도착화물 검역 강화 : 샘플 검사 1~3일, 인증 과수원·포장장만 가능
- 트럭 운송 : 디젤가격 하락에 따라 운송비 점차 안정화되고 있으나 우기 방콕 시내 지연 주의 필요하며 냉장·냉동 차량 성수기 수요 증가로 최소 3~5일 사전 예약 필요

싱가포르지점

- 싱가포르 항만 운영사인 PSA Singapore는 세계 최대 선사 중 하나인 MSC와 MOU를 체결하여 친환경 연료 벙커링 인프라 구축 및 탄소 배출 모니터링 시스템의 현장 적용을 확대하면서 탈탄소 협력을 강화

호치민지점

- OZ 여객기 W/BODY 전환 이후 SGN 발 SPACE 문제없으며 항공운임도 큰 변동은 없으나 FSC 하락 추세
- 항만 적체는 큰 개선없이 보통 2~3 일 정도 지연

페낭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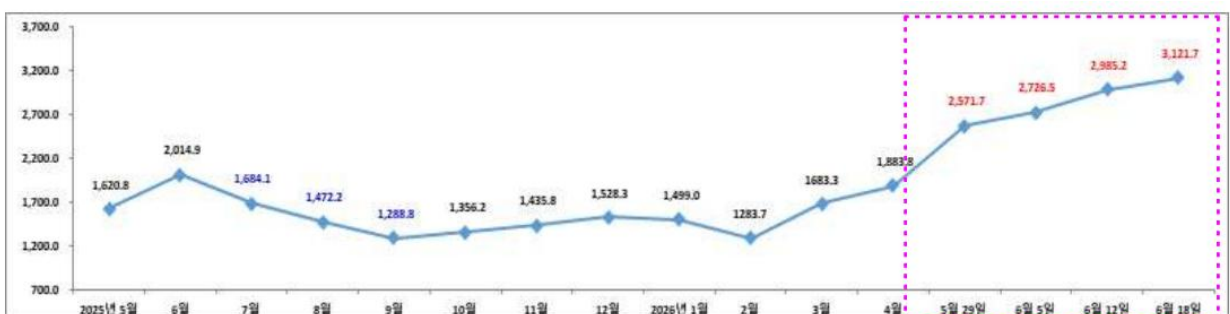
- 페낭항만위원회 (PPC)는 페낭 항만의 안전, 효율성을 위해 첫번째 선박교통관리시스템 (VTMS)을 도입, VTMS는 페낭 해역의 해상교통을 위한 중앙 지휘 허브로 선박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항해 안전과 교통관리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
- 페낭 웨스트포트는 2026년 1분기 연료비는 보조금 없이 디젤을 사용하면서 전년 동기대비 17%, 전분기 대비 18% 증가했으며,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6년 4분기까지 차량의 10%를 전기트럭으로 교체예정

충칭지점

- 충칭 장베이 국제공항의 항공 화물 허브 기능이 강화되면서 26년 6월의 화물처리량은 1.9만톤을 돌파, 전년동기 대비 28.7% 증가
- 충칭은 26년 6월, 터키 이스탄불과 인도 뭄바이 항공화물 노선을 신규 개통하여 6월말 기준 충칭 장베이 공항의 실제 운항 중인 국내외 화물전용 노선은 총 26개로 증가

상하이지점

- 미국 관세정책 변화 가능성과 연말 판매 시즌을 대비한 조기 선적 수요 증가로 글로벌 공급망의 성수기 진입 시점이 예년보다 앞당겨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6월 18일 기준 SCFI 종합운임지수는 3,121.6으로 전주 대비 4.6% 상승하며 강세 유지



- 6월부터 주요 간선행로에 성수기 할증 (PSS)이 적용되고 있으며, 선복 부족 현상과 조기 선적 수요 증가로 Spot Rate 및 FAK Rate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중국-미주 노선은 AI 및 첨단기술 화물 수요와 미국 여름철 대형 할인행사 물량 영향으로 견조한 출하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중국-아시아/태평양/중동노선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운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인도/호주노선은 공급 부족으로 운임 상승 추세

❁ 광저우지점

- 북미 : 월말 임박해 일반화물 위주 시장수요 급증, 항공사 공급감소 지속되면서 시장 운임은 상승 전환
 - LAX : 가전·컴프레셔·서버 캐비닛 물량 증가, 일부 공급 취소 (K4·QF·CZ) 되며 운임 상승
 - ORD : 중량화물(전자담배·액체 IBC통), 프로젝트 물량 등 출하 증가, 일부 공급 취소(CK·QF) 되며 운임 상승
 - JFK : 전자상거래 수요 지속되는 가운데 항공편 다수 취소(CA·K4·3V·CZ)로 시장 운임 상승
- 유럽 : 화동지역 4월 하순~ 5월 중순 7-8척 규모 대형선박 취소로 항공 전환 물량 발생, 고운임 유지
- 미국/이란 종전 협의에 따라 국제 유가가 하락전환 하면서 국내 항공사들이 국내선 유류 할증료를 큰 폭으로 인하, 항공업계는 국제선 유류할증료도 추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름 휴가철 여행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 상승
- DHL·FedEx·UPS, EU 저가 전자상거래 관세 도입 반발 : 7월 1일부터 테무·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발 저가 수입물품에 건당 3유로의 관세를 부과하는 EU의 계획에 대하여 특송 3사는 EU 재무장관에게 공동 서한을 보내, 새로운 통관 데이터 신고 요건을 7월 1일까지 구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주장, 업계는 준비 기간이 부족할 경우 정상적인 특송 업무 처리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
- 중동 지역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항공화물 시장의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항공사들의 중동 노선 운항 중단과 우회 운항이 늘어나면서 아시아-유럽 등 주요 노선의 공급이 감소했고, 일부 화주들은 해상운송 차질을 피해 항공운송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항공 차터(전세기)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운임도 상승세를 보임

❁ 선전지점

- 2026년 4월, 선전 공항동 종합교통 허브의 상부 구조물이 전면적으로 완공되어 광둥-홍콩-마카오 그레이터 베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항공·철도·도로·해양을 통합한 세계적 수준의 복합 연계 허브로서, 2028년 말 준공 및 개통될 예정

- 옌텐항이 남중국과 자바를 연결하는 쾌속선 (SCJX, South China Java Express)을 개통하여 선전, 광저우, 샤먼과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및 수라바야를 직항으로 연결 - 옌텐항은 올해 7개의 국제노선을 신규 개설, 매주 100여 개의 국제노선을 운항 (46개국, 146개 도시)
 - 선전 수출 해운 시장은 최근 수년래 보기 드문 선복 부족상태, 미주 노선이 특히 심각하며 전체 화물의 80% 이상이 선적 지연되고 있으며, 전체 물량의 롤오버 (Roll-over) 비율로 30%~50% 수준
 - 운임 측면에서는 미서안 노선이 4월 말 40피트 컨테이너당 2,900달러에서 6,300달러로, 미동안 노선은 3,900달러에서 7,500달러로 급등하여 2배 이상 상승
- ❁ 칭다오지점
 - 7 월의 운임이 예년과 다르게 하락하지 않는 이유는 수요 측면 보다는 연료비 상승 등 항공사의 공급 원가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 텐진지점
 - 남미 서안 관련 선사 재편 (CMA CGM 관련 조정 정보) : 개정된 ACSA1 이 천진 신항을 극동 기항지에 포함되면서 베이징-천진-허베이 등 화북 지역의 기계, 자동차 부품, 화학 제품 등이 칭다오나 상하이 트럭 경유 없이 남미 서안 (콜롬비아/페루/칠레)으로 직항 운송이 가능하게 됨
 - 미국·유럽항 항공 화물 운임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인접 국가 (일본, 한국, 동남아시아) 경유 운송이 가격대비 효율적이라는 것이 시장의 평가
 - ❁ 애틀란타지점
 - 항공화물 FSC : 현행 USD1.50/kg 에서 7 월 1 일부 USD1.40/kg 로 인하
 - ❁ 파리지점
 - FSC 운임 인하 : KE,KJ - EUR 1.35/KG
 - 각 선사 EFS(EMERGENCY FUEL SURCHARGE)기존 수준 유지

주요 항공사/선사 스케줄 변동사항

- ❁ 서울지점

- 이란이 6 월 11 일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봉쇄를 선언하였으나 이후 미군의 통제 하에 통항이 재개되어 200 여 척 이상의 선박이 안전하게 해협을 통과하였고, 이란군의 동향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단기적인 운항 차질 우려는 다소 완화된 상황
- 한국발 유류할증료(FSC)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7 월 16 일부 추가 인하가 예상되는 반면, 해상 부문에서는 Maersk 가 7 월 1 일부 아시아-구주 노선 유류할증료(BAF)를 인상하고 CMA CGM 이 7 월 10 일부 아시아-미주항 성수기할증료(PSS) FEU 당 4,000 달러 부과를 예고하는 등 선사 중심의 할증료 인상이 두드러지고 있음
- Maersk 는 베트남 까이맵-부산-롱비치를 잇는 임시 태평양 노선(TPX) 서비스를 9 월까지 연장 운영하며 미주 서안항 추가 공급에 나서고 있고, 주요 선사들은 선대 재배치 (Cascading)를 통해 아시아-지중해/중동 구간에 신규 선박을 지속 투입하고 있음

✿ 홍콩지점

- OOCL 신규 동남아-인도노선 개설 예정 (SIS2)
 - 새롭게 추가된 동남아시아-인도 아대륙 노선2는 하이퐁과 인도 서부를 효율적으로 직접 연결하는 노선으로,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간 연결을 강화
 - SIS2 port rotation : Qinzhou – Yangpu – Haiphong – Singapore – Mundra – Singapore – Hong Kong – Qinzhou
- OOCL 중국-인도네시아 노선 신규 운항
 - 신규 중국-인도네시아 노선은 중국 남부 주요 수출 허브와 인도네시아 주요 관문인 자카르타 및 수라바야를 직접적이고 안정적으로 연결.
 - CIS3 port rotation : Xiamen – Nansha – Jakarta – Surabaya – Yantian – Xiamen

✿ 싱가포르지점

- OZ : 여객기 7월 DAILY 운항에서 일부 결항 예정 (7/1,4,7,10,14,17,20,26, 총 8회 결항)

✿ 페낭지점

- KE : 화물기 주간 6회 운항에서 7월부 DAILY로 증편 예정

✿ 상하이지점

- KJ : 7월 PVG-ICN 구간 일부 스케줄 Half Charter로 운항할 예정

✿ 파리 지점

- TW 7월 결항 일정 : 01, 06, 12, 19, 24일

- HMM, ONE, YML : 기존 FE4 노선 기항지 축소.

LE HAVRE -> SHANGHAI -> BUSAN (T/T 44-49 DAYS)

기타 공지사항



🌸 서울지점

- EU의 전자상거래 면세(De Minimis) 폐지가 7월 1일부로 시행되어 150 유로 면세 한도가 사라지고 HS Code 품목당 3 유로의 균일 관세가 부과되며, 11월부터는 박스당 2 유로의 통관 수수료까지 추가될 예정입니다. 현재 한·중·구주 항공화물 수요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초저가 전자상거래 물량의 단기적 위축이 예상되는 만큼, 전자상거래 의존도가 높은 화주분들께는 사전 안내 및 대응 전략 수립을 권고드립니다.
- 조기 성수기 진입과 컨테이너 장비 수급 불균형, 파나마 운하 흘수 제한 강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해상·항공 전 구간에서 공급 차질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안정적인 스페이스 확보를 위해 최소 7~10 일 이상의 사전 예약을 권장드리며, 호르무즈 해협 관련 정세는 휴전 분위기 속에서도 변동성이 남아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방콕지점

- 우기(7~10 월) 폭우 : 방콕 내륙 운송 지연 가능 → 급한화물에 대한 납기 여유 확보
- 신선화물 성수기 : 한국행 일반 화물도 4~5 일 전 예약 권장
- 바트 환율 32~33THB/USD, 7 월 관세 및 중동 상황 따라 변동성 확대 예상
- 7 월말 태국 연휴로 (7/28~30, 은행, 관공서, 세관 휴무) 7 월 말 선적·통관 화물은 가급적 일정을 앞당길 것을 권장

🌸 타이페이지점

- 2026년 7월 대만은 "전면적인 태풍 시즌 피크는 아니지만, 국지성 폭우와 태풍 영향으로 물류 일정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로서 화물 Wet Damage 방지가 중요하고 스케줄 지연 및 조정 가능성 높음